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허남춘*

<차례>

- I. 서
- II. 원시서사시적 특징
- III. 고대·중세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 IV. 근대와 신화

국문요약

신화에는 우주 자연현상과 인간 활동의 오랜 내력이 담겨 있다. 구석기·신석기 시대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신화는 고대 건국시기 왕성한 창작을 보이다가 중세에는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다. 중세 불교·유교 같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근대에 와서 신화에 대한 오해와 비판은 심하다. 긴 시간을 관통한 신화 속에는 어떤 시대적 사유가 담겨 있는지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표다.

구석기시대에는 사냥과 전쟁과 섹스를 신성하게 여겼고 이것이 신화에 반영된다. 그리고 돌·나무·달과 같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벼락·일식·폭풍 같은 자연현상을 두려워하며 이를 신성시했다. 제주에서는 바람의 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등신도 그 부류다.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던 신화도 많이 남겨져 있다. 그때 인간과 동물은 대등하거나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였다. 동물은 사냥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래서 뼈를 숭배하는 이야기(사만이본풀이)가 다양하게 전승된다.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소장,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석기시대에는 농업혁명이 있었다. 땅과 식물에 대해 신성성을 부여했고 인간과 땅의 교감을 믿었다. 씨앗과 꽃과 열매의 중요성이 다양한 이야기 속에 녹아들었다. 특히 제주에서는 꽃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신화가 두드러진다. ‘서천꽃밭’의 꽃에서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 꽃으로 죽은 이도 살리고 나쁜 인간을 죽이기도 한다. 제주에는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형상을 본떠서, 인간도 땅에서 솟아난다는 신화가 풍부하다. 건국신화 주인공 3신인도 모홍혈이라는 땅에서 솟아났다. 거인 여성 설문대할망 설화는 애초에 신화였던 것이 풍화된 것으로, 지형형성 신화다.

고대는 영웅의 시대다. 처음에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고 다음엔 남성 영웅이 등장했다. 제주에는 여성 영웅 신화의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다. 중세 이념에 의해 크게 억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 미륵이 기존 신을 대신하기도 했고, 유교의 영향으로 이야기가 윤리적 가치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승려를 비판하고 양반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다.

신성성을 드러내던 고대 영웅은 중세를 지나면서 윤리규범의 주도자가 되었고, 근대 이행기에는 로맨스적 성격의 주인공으로 바뀐다. 고전소설의 주인공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신화는 이야기의 골격을 유지하되, 고대적·중세적 변이가 계속되어 왔다. 그 변이 현상을 읽어 내야 신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이다.

주제어 : 고대신화, 중세신화, 여성 영웅, 남성 영웅, 사냥 신, 곡모 신, 자연 숭배, 불교, 유교, 이념 갈등, 변이

I. 서

제주는 신화의 보고라고 한다. 제주에는 1만 8천 신이 산다는 신들의 고향이다. 신들의 내력을 담은 신화가 많이 남겨져 있어서 신화의 수도라고 할 만하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기록된 것으로 최고라면 제주의

신화는 구비 전승되는 것으로 최고라 할 만하다. 기록된 신화는 책 속에 죽어 있는 신화다. 제주의 신화는 말과 노래 속에 살아 있다. 무당의 노래 속에 신들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가 살아 있다. 그래서 신화라 하기보다는 ‘서사무가(敍事巫歌)’라 해야 하고, 신들의 근본(根本)을 풀어내는 것이니 ‘무가 본풀이’라고 불러야 옳다. 무당(제주에서는 심방)과 단골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어서 그냥 ‘본풀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본풀이’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을 모두 표방한다고 할 수 없다. 제주적인 독자성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성 속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이 본풀이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실체는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본풀이의 ‘서사무가’적 측면을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우선 산문이 아니고 노래 불린다는 차원에서, 신화적 속성을 지니지만 서사시라 불러야 옳다. 그런데 그 서사시는 무속이 전개되던 원시적인 것도 있고, 고대 국가 건설기의 고대적 요소도 강하고,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중세적 요소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그러니 이 서사시를 구분해서 살펴야 하고, 하나의 서사시 속에 여러 시대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 그 복합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동일 교수는 서사시를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고 하면서, “(1) 신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을 밝히는 신앙서사시 또는 창세서사시가 있는 다음에, (2) 민족의 지도자인 영웅이 다른 민족과 싸우고, 나라를 세운 내력을 설명하는 영웅서사시 또는 건국서사시가 생겨나고, (3) 예사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일상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범인 서사시 또는 생활서사시가 그 뒤를 이었다”¹⁾고 했다. 제주도 서사시에

1)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9, 34-35쪽.

는 분명 이 세 가지 유형이 두루 분포한다. 그러나 하나의 본풀이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것도 있다. 그것은 원시에서 고대로 변모하는 과정의 것도 있고, 고대에서 중세로 변모하는 시기의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근대 이행기적 특성을 담은 것도 있다.

이처럼 서사시는 어느 하나의 속성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신앙서사시라 하더라도 다음 시대의 영향을 받아 내부적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세서사시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영웅서사시를 내장하기도 한다. 원시적 원형 혹은 고대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것은 드물다. ‘전통’이란 것도 불변의 유산이 아니듯이, 극단적인 전통주의가 도입한 개념이 원형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원형이란 것은 없다. 그래서 “신화학 연구자들이 어떤 특정 신화소를 전제로 하여 ‘원형’을 논하는 경우, 그 ‘원형’이란 것은 신화가 정착하는 단계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²⁾고 했다. 전파론을 염두에 두고 원조를 논할 수도 있지만, 원형은 존재하지 않고 그 변이형이 수없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시대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조동일 교수도 ‘신화가 정착하는 단계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서사시의 시대구분을 감행하고 있다.

그는 <바리공주>를 예로 들며 “중세 가치관을 나타내면서 영웅다움을 버렸다”고 하면서 남녀의 차별문제를 무시하고 순종으로 일관하고, 효를 중요 가치로 부각시키면서 자식의 도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³⁾ 그런 시각으로 제주도 본풀이를 보면서, “중세의 창조물로 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신본풀이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안의 변화를

2) 전경수, 『사멸위기의 문화유산과 토속의 재발견』,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민속원, 2009, 47-49쪽. 전통론자들이 의지하는 ‘고유성’이란 것도 시간개념의 개입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므로 ‘고유함’이란 늘 조작될 수 있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3)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6, 계명대출판부, 2007, 113쪽.

거치면서 무속의 사고방식을 넘어섰다”⁴⁾고 했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라 일컬어지는 열두본풀이 내용을 보면 중세성이 두드러지고 애초에 제주도에 있던 이야기이기보다 육지에서 전래된 이야기일 것으로 보인다. 7편 정도는 현재까지 육지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함이 검증된 바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 이행기적 성향을 드러내는 작품도 있으니, 바로 <세경본풀이>다.

우리가 주지하듯이 ‘세경신’은 오곡종자를 하늘에서 인간세상으로 가져다 준 곡식의 신이자 농경의 신이다. 인간세계의 여성과 천상계의 남신의 결합인 천남지녀형(天男地女形)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무꾼과 선녀>의 천녀지남형(天女地男形)과 대조되는 이야기다. 자청비는 인간세계로 올라가 온갖 수난과 역경을 헤치고 천상계 시부모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을 살려내는 공로로 ‘오곡종자’를 받아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여성영웅이다. 자청비가 사랑한 문곡성은 그렇다 할 역할도 하지 않고 ‘상세경’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 정작 고난을 이겨낸 중심 인물인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니, 이를 두고 독자들은 분노를 폭발시킬 정도이다. 이처럼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영웅으로서의 자청비가 인간세상에서 농업신으로 좌정하는 <세경본풀이>는 고대 여성영웅서사시라 할만도 하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근대 이행기의 로망·로맨스를 닮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복을 하는 모티프야 중국이건 우리나라에건 흔한 설화의 반영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따라 나서고 함께 목욕하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드디어 자청비의 적극적 노력으로 합방을 하고, 천상계로 떠난 남성을 찾아 나서서

4) 조동일, 위의 책, 113쪽.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은 <춘향전>과 유사한 로맨스라 하겠다. 더구나 둘은 천남지녀형으로 상통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세경본풀이>는 애초에 영웅서사시였지만, 무속의 사고방식을 넘어섰고 영웅다움도 버린 범인서사시의 면모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화가 정착하는 단계의 시점’을 시대구분의 근거로 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조동일 교수가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를 두고 “고대 영웅서사시의 흔적을 간직한 점에서는 영웅서사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세영웅서사시로 재창조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중세화 되면서 영웅서사시가 범인서사시로 바뀌었다”⁵⁾고 지적했듯이, 고대영웅서사시적 흔적이란 측면은 그대로 인정해야 좋을 것 같다. 그 복합성을 논하여, 중세영웅으로 재창조되지 못하여 고대 영웅적 면모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범인서사시적 변이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영웅에서 범인으로, 제왕에서 백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관심을 돌리는 새 시대의 서사시란 측면에서 그 변화의 기미를 수궁할 수 있지만, 중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애민·평등·평화’의 이념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세 이념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사 담화양식 내부의 변화를 수용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범인의 일대기로 진술되었다고 본다. 농업신으로서의 문화 영웅적 면모를 중시한다면 <세경본풀이>는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 일반신본풀이 <세경본풀이>는 아직 무속의 자장 속에 있고, 농업신이라는 고대 문화영웅 서사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로맨스적 진술방식을 택해 범인서사시로 이행해 갔다고 본다. 자칭비는 고대에서 유래한 ‘영웅의 일생’을 지니고

5) 조동일, 『세계서사시의 중세화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38쪽.

있지만, 주인공의 속성에서 중세서사시라 하겠다.

결국 일반신본풀이에는 아직도 종교 의례적 절차 속에 놓여 신성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천지왕본풀이>처럼 창세서사시의 흔적을 강하게 지닌 것도 있고, <할망본풀이>처럼 고대 여성영웅서사시인 것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속성들이 중첩되어 있되, 중세의 범인서사시로 정착한 흔적이 역력하다.

II. 원시서사시적 특징

신화는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다. 과편적이고 비극적인 우리의 세계를 변형시켜보는 놀이다. 신화는 ‘만약 이렇다면’ 하고 물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신화란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다. 신화는 통찰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알찬 삶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유효한’ 신화다. 신화는 내면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과 욕망에 말을 건넨다.⁶⁾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현실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신화는 공존과 평화의 원리를 제공한다.

초창기 신화는 언제 탄생하였을까. 네안데르탈인에게는 통합적 인식이 부족했는데, 후기 구석기시대(약 3만여 년 전) 현생인류에 의해 뉴런

6)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15-18쪽. 여기서 저자는 신화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초기 문명시대, 기축시대, 탈기축시대, 대변혁시대로 구분하여 서술하는데, 본고는 시대구분의 전제를 여기에서 원용한다.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소빙기(小氷期)와 같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뇌에서는 언어를 인식하는 부분, 박물학적 인식 부분, 사회적 인식 부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철학적 사고의 최초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에게 의해 오랜 세월을 들여 신석기 혁명이 준비된다.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 혁명(1만 년 전)까지의 오랜 변화의 시기를 중석기라고 한다. 이 시기 수렵민들의 지식과 체험의 축적을 토대로, 신석기 혁명이 준비되고, 그 결과 농업이 시작되고 동물의 가축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인류 안에 최초의 철학 형태인 신화가 만들어진다.⁷⁾

물론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신화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구석기시대에는 신 개념이 없었는데, 신석기에 들어 신화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그린 사람들은 소를 그리고, 막연하게 ‘저 동물을 잡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 후 신석기시대에 와서는 신에게 ‘저 동물을 잡게 해 주세요’라는 기원의 대상이 된다.⁸⁾ 그러나 이 시기에 애니미즘과 토템이즘과 같은 원시종교도 생성되었고, 수렵의 신을 모시게 되는 내력의 <서귀포본향당본풀이>도 그런 본보기로 들 수 있다.⁹⁾

구석기시대(3만 년 전-1만 년 전)의 수렵민은 사냥과 전쟁과 섹스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직접적이고 강렬하였다. 그들은 돌·나무·달과 같은 자연의 영속성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벼락·일식·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냥

7)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동아시아, 2003, 17-18쪽.

8)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21쪽.

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개정 4판), 지식산업사, 2005, 53쪽.

에 민감한 바람의 영향을 반영한 <서귀포본향당본풀이>와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바람을 신성시했을 것이고, 특히 일정한 시기(영등달)의 영등풍신에 대한 사유도 오래된 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 대한 관념도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과 천상을 매개하는 샤먼의 등장도 이 시기에 있었을 것이고, 사냥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새머리 가면들 쓴 사람들이 아마도 샤먼일 가능성이 높다.¹⁰⁾ 수렵사회에서 동물들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에 동물과 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상상한다. 그래서 신화 속에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혹은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인간세계에 인간과 동물이 모두 말을 하였는데, 대별왕이 송피 닷 말 닷 되를 뿌려 그때부터 짐승과 새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세계에 질서가 서게 되었다고 하는 바, 이때 비로소 문명(文明)의 세상이 왔다고 인간은 자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 위주의 세상일 뿐이다. 그 이전에 인간과 동물과 심지어는 식물과도 소통할 수 있었던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온 생명이 소통하는 신명(神明)의 세상이었을 것이다.

신화에서 즐겨 다루는 것은 안과 밖에 완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는 장소, 동물과 인간이 똑같은 생물이었을 때의 일, 인간이 지금처럼 주위의 생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들과 같은 말을 쓰고 대등한 관계에 있던 때의 일이다.¹¹⁾ 이런 신화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무한 이용하는 도구로만 인식하는 서구적 이원론의 폐해를 치유할

10)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32쪽.

11)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28-29쪽.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는데, 인간과 생물의 공생관계에 관심을 둔 일원론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神明) 세상에서 문명(文明)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세상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인가의 답변은 독자에게 미룬다.

동물은 인간보다 총명하여 세상의 신비를 잘 알고 있다. <창세가>를 본다면 미륵님이 불과 물을 찾아 나서는데 풀 메뚜기와 풀 개구리와 생쥐를 통해 알아낸다.¹²⁾ <삼공본풀이>에서 자청비를 못살게 군 언니들은 청지네와 버섯이 되기도 하고, <칠성본풀이>에서 뱀이 인간으로 환생하기도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은 못된 수명장자를 징치한 후, 수명장자의 딸은 팔벌레로 환생시키고 아들은 솔개로 환생시킨다. 그런 상상력의 근원은 구석기 수렵시대였을 것이다.

동물은 사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다. 동물의 살과 뼈가 바로 인간의 생존에 긴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동물에 대한 죄의식을 지녀, 사냥 후 뼈와 두개골과 가죽을 재구성하여 진열하고 동물의 부활을 기대하였다고 한다.¹³⁾ 인간의 동물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진다. 산 채로 탕에 넣으면서 그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축제 때마다 산 물고기 잡기를 하면서 그 유희에 대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 시대의 천박함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1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31-232쪽.

13) <사만이본풀이>에서 사만이는 총을 사서 사냥에 나섰다가 풀밭에서 백년 해골을 발견하고 고풍(庫房)으로 모셔와 조상으로 위하고부터 사냥이 잘되어 부자가 된다. 사만이가 백년 해골을 모셨던 생업수호신 신앙과 같은 행위는 수렵문화의 상징으로 산악시대, 중산간 지대에 골고루 퍼져 있다.(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멧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0, 43쪽) 인간의 뼈를 위하듯 동물의 뼈를 위한 것이 수렵문화의 보편적 특성이었다. 북방민족들이 사슴이나 동물 머리를 집안에 장식하는 것도 애초 동물의 뼈를 숭상하던 흔적이다.

14) 동물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다음 시기에도 이어져, 중세에는 불교가 이를 구체화하

신석기시대는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때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땅과 씨앗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신성성을 부여하였다. 구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은 서로를 복돋고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인간과 땅의 교감을 믿었다. 식물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씨앗을 심을 때 남녀가 성교의식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농경을 주로 하는 민족의 민속과 민요 속에 그 잔재는 강렬하게 남아 있다. 식물의 신성한 힘을 순환시키기 위해 땅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이런 믿음은 “주는 것 없이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돌려주어야 한다.”¹⁵⁾ 는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 제단에 뿌리면서 인간의 정성을 땅과 지신에게 표시했던 것이다. 인간 제물 의식을 무지하다고 바라보는 우리는 땅에 대해 과연 어떤 보상을 했는지, 땅이 주는 혜택에 대해 어떤 고마움을 표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식물이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신화도 이 시기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식물 중에 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제주도본풀이에 풍성하다. <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이 서천꽃밭의 꽃으로 아이를 점지하고,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고, 후에 아들인 할랑궁이가 서천꽃밭의 환생꽃을

여 육식 금기를 계율화하고 있다. 금생에서 못된 짓을 하면 죽어 지옥에 간다고 했고, 거기는 끓는 물이 부글부글거리는 곳이라고 했다. 그곳은 불교에서 말하는 화탕(火湯) 지옥이었다. 그 외에도 혀를 뽑는다는 발설(拔舌) 지옥,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지는 철상(鐵上) 지옥, 나무에서 칼날이 수시로 떨어져 살을 한 점씩 베어내는 검수(劍樹) 지옥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지옥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 방식을 보면 알게 된다. 산 채로 고기를 뜨거운 물에 넣고, 혀를 뽑듯이 산 채로 다리를 뽑기도 하고, 산 채로 철판구이를 하고, 한 점씩 살을 저며 굽고 끓여 먹는다.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고 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5)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50쪽.

따서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못된 재인장자를 멸망꽃으로 제치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역시 서천꽃밭의 꽃으로 악의 무리를 제치함과 동시에 죽은 남편을 살린다. <차사본풀이>의 세 아들이 죽어 꽃으로 환생한다는 사유도 이 시기의 것이다. 농경을 중시하게 된 제주사회에 가장 풍성하게 남아 있는 화소들이라 하겠다. ‘서천꽃밭’이야말로 탐라국 이전의 제주가 그려낸 신화의 세계이다. 서천(西天)이란 용어가 불교의 서방극락에 의해 침투된 흔적은 있지만 사유체계는 매우 독자적이고 흥미롭다.

신앙서사시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고대 여성영웅의 이야기가 <할망본풀이>다. 이 할망(할머니)은 ‘삼승할마님’ ‘삼심할마님’ ‘불도할마님’ ‘생불할마님’ 등으로 불리는데, ‘불도(佛道)’ 나 ‘생불(生佛)’은 불교에서 온 명칭이고 ‘삼승’은 ‘생기다’의 고어 ‘삼’과 ‘이승, 저승’의 ‘승’을 합한 말로 ‘아이를 잉태시키는 세상의 여신’¹⁶⁾이라 하겠다. 삼승할망은 하늘에서 꽃씨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온 후 석해산에 서천꽃밭을 만들고, 여기에 피어 있는 생불꽃을 따다가 부부 사이를 다니며 아이를 잉태시킨다고 한다. 명진국 따님애기와 동해용왕 따님애기의 투쟁은 여성영웅의 대결담이다. 명진국 따님애기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설정은 후대의 변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육지의 영향이고, 고대 혹은 중세 이념의 채색일 가능성이 높다.

땅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한다는 신화적 사유도 이 시기의 것이다. “유럽과 북미의 초기 창조신화는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 올랐다고 상상한다. 최초의 인간은 씨앗과 같이 지하세계에서 생애를 시작한다.”¹⁷⁾는 흥미로운 발언을 들으며 제주의 지중용출(地中湧出) 화

1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57쪽.

17)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51쪽.

소의 신비가 말끔히 해결된다. 제주의 대부분 신들은 땅에서 솟아났다. 제주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에서도 고·양·부 삼신이 땅에서 솟아난다. 남신이건 여신이건 대부분 땅에서 솟아나는데, 제주신화의 탄생담은 육지의 신들이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강(天降) 화소와 다르다. 천강화소가 고대국가 건설기 지배자의 신화라고 한다면, 제주의 것은 이보다 앞선 시기 농경을 위주로 하는 신석기시대의 신화다. 유럽 등지의 초창기 창조신화에는 어느 빈도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근역에서 지중용출 화소는 흔치 않다. 일찍이 오바야시(大林太郎)는 지중 출현의 신화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제주 삼성신화를 들었는데, 이런 기원신화를 미개농경민 사이에 넓게 분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여성원리로서의 대지 혹은 어머니인 대지의 관념이 있다”고 한 롱(C.H. Long)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동굴이 여성성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¹⁸⁾ 신석기 농경민의 사유를 담은 좀더 근원적인 화소를 두고 ‘미개’하다는 식의 논리를 편 점이나 대지의 생명력과 의 연관성을 묵살한 점을 보면서 제국주의 학자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모든 생명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평범할 수 있지만, 인간이 땅에서 탄생하고 또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식물의 영원성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신성한 힘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무한한 생명의 회로(cycle)를 갖는데 반해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설워 마라 / 명년 삼월 봄이 오면 너는

18) 大林太郎, 권태효 외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100-101쪽. 地中 출현 신화로, 앓삼의 로타·나카族的 세 胞族(이것 역시 3인의 형제가 선조로 등장한다), 멜라네시아 토로부리안도의 인류 한 쌍, 북미 남서부 스니族的 신화 등을 소개하였을 뿐 그 연구성과가 미미하다.

다시 피룬마는 /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라는 흔한 민요 가락 속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탄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서 식물의 무한한 삶을 부러워한다. 신화의 상징성을 풀어내면 인간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다. <프로셀피네> 신화는 1년 중 3분의 1을 지중에 매몰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식물의 삶을 의인화한 것이며, 한편 그런 식물의 무한한 삶을 닮으려고 한 인간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오이디프스> 신화는 오이디프스가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갖고 파탄에 이르는 표면적 스토리에 매달려서는 읽히지 않는다. 씨앗이 대지모(大地母)와 결합하는 무한한 삶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유한한 삶을 대비시키고, “땅으로부터 출생하는 식물을 인간의 모델로 보는 사고”¹⁹⁾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신화의 주인공이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식물과 같은 무한한 생명력의 산출’이란 신성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어머니 여신이 죽어 거기에서 작물이 기원하고 음식의 근원이 마련되었다는 신화도 땅과 생명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의 신화와 유사한 것이다. 죽은 몸에서 만물이 기원한다는 시체화생(屍體化生) 신화는 세계 보편적이다. 중국의 반고처럼 남신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머니 여신이 살해당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농경과 새로운 문화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하이누벨레형’ 신화가 주목되고, 이를 <초공본풀이> 자지맹왕아기씨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연구 성과도 관심을 기울일 대목이다.²⁰⁾ 이런 유형의 것으로 일본의 <오오케츠히메 신화>와 <우케

19) 레비 스트로스, 임봉길 역, 『신화학』 1-날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5, 63쪽.

20) 김현선,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 『탐라문화』 37호, 2010, 42-45쪽. 그는 ‘어머니의 출병막’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살해 증거를 삼고 있으나, 시신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했다. <영실 오백장군> 혹은 <설문대할망설화>에서 죽은 어머니를 먹는 이야기도 여신 살해의 화소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유추하

모치 신화>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신의 배설물을 통해 음식물 등을 건네주다가 살해되고, 신의 몸에서 농경재배에 필요한 갖가지 내용물이 나온다는 점이다. 제주의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대각시의 딸이 죽어 화장실의 신이 되고 몸은 여러 가지 해산물이 되는데, 역시 이 이야기 속에도 배설물과 음식의 연결 고리가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소의 신, 즉 측도부인(廁道婦人)이 되고,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죽은 위에 다시 복수하려고 두 다리를 찢어 발겨 드딜광(디딤돌)을 마련하고, 대가리를 끊어 돌도고리(돼지 먹이통)를 마련하고, 머리털은 끊어 던지니 저 바다에 가 폐(해조류)가 되었다. 입은 끊어 던지니 바다의 솔치가 되고, 손톱·발톱은 끊어 던지니 쇠굼벵이·돌굼벵이(딱지조개의 일종)이 되고, 배꼽은 끊어 던져 버리니 굼벵이가 되고, 항문은 끊어 던져 버리니 대전복·소전복이 되고, 육신은 푹푹 뺏아서 날려 버리니 각다귀·모기가 되었다”²¹⁾ 그런데 여기서 화생한 생물들이 몸의 신체부위와 외형상 유사함을 드러내는 면모가 강해, 이것들이 인간의 농경재배에 필요한 내용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이며, 이 이야기는 ‘하이누벨레형’ 신화의 변이형 혹은 후대형이라 하겠다. 원한과 복수, 선악의 대결이란 범인적 사유가 깊게 개입된 것으로 보아 중세서사시적 변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 있다. 신석기 혁명 이후 세계의 중심은 여신이고, 이 여신은 죽음과 싸우고 인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설문대할망설화>도 ‘하이누벨레형’과 비교할 만하다.

21)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96, 196쪽.

Ⅲ. 고대·중세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신석기시대에서 초기 문명시대로 접어드는 그 사이에 인간은 전 지구적으로 큰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의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힘에 맞서 초인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흔적이 메소포타미아인의 홍수신화에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아트라하시스’다. 세상의 창조는 진행 중이었다. 혼돈에 맞선 신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인류 또한 무질서와 혼란을 잠재울 신성한 힘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재난과 혼돈의 치유를 위한 요구가 창조신화였다.²²⁾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상계 신의 혈통을 잇는 신성한 힘을 바탕으로, 인간세계의 무질서 가운데 매우 위중한 현상이라 할 해와 달이 두 개인 천문현상을 조절하게 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상계의 아버지(천지왕)와 지상계의 어머니(총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신이면서 인간인 ‘신인(神人)’의 지위에 있다. 그들이 이루어내는 성과는 무질서의 조정일 뿐이지 우주 창조에는 미치지 못한다.

창조신화는 <천지왕본풀이>의 서두격인 <초감제>다. 진정 이것이 초기 문명시대의 고대서사시가 출현하기 이전에 형성된, 창세의 본령을 이루는 신화일까. <초감제>를 포함한 <천지왕본풀이>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창조신화는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대립이 심각했을 때 이를 멈추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늘과 땅이 정연해지고 그 사이 인간과 만물이 차례로 배열되고,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고, 이승과 저승도 엄연히 구획되었다는 이야기는, 혼돈과 무질서가 판치던 태초의 그때를 서술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지금의 질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22) 카렌 암스트롱, 『신화의 역사』, 71-79쪽.

해와 달이 돌인 우주현상을 해결한 대목 다음에서 15 성인의 도업이 제시된다.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유소씨, 수인씨, 복희씨, 신농씨로 이어지는 중국 신들의 계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생기고, 집을 짓고 살게 되고(有巢), 불을 발견하여 생활이 윤택해지고(燧引), 가축을 기르고 물고기를 그물로 잡고(伏犧), 농사를 지어 풍요롭게 되었다는(神農), 가지런한 발전의 논리가 질서의 세계를 암시한다. 그 자체로는 문화사의 발전단계에 대한 서술이어서 고대국가 형성기의 사정을 말해주지만, 제주도본풀이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중국의 중세문명을 받아들여 통치 질서를 완비하였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신명의 시대는 끝났고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는 인간 위주의 이야기이고, 질서와 문명을 위해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승 차지 내기와 같은 투쟁이 본질인 시대가 오고 있었고, 투쟁에서 승리한 영웅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

고대 영웅은 괴물과 싸운다든지 지하세계를 방문한다든지 여신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영웅이나 샤먼의 전형적인 업적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나라와 투쟁에서 승리하는 건국신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에서 여성영웅의 이야기는 미미한 편이다. 고대국가가 건설되면서 그 이전의 여성영웅과 관련된 전승은 파괴되는 것이 일반이었고, 남성영웅의 이야기에 여성영웅의 이야기가 편입되어 신화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나, 수로의 어머니 정견모주나, 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가 그 대표적 신격이다. 제주 당본풀이에서는 여성영웅이 남성영웅에 부속된다거나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남는 것은 흔치 않다. 여성신이 남성신과 대결하여 당당히 이기고 좌정하는 당본풀이가 많다. 육지의 남성영웅 건국신화와는 지형도가 다르다. 일반신본풀이에서도 역동적인 여

성영웅을 만나게 된다. 자기 복에 먹고 산다고 선언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가문장아기’(삼공)라거나, 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찾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히 농업신이 되어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자청비’(세경)는 여성영웅의 면모를 강하게 지닌다. 그러나 여성신은 남성신에 대한 희생적 행동을 통해 그 존재가치가 부각된다. 사라도령과 함께 꽃감관을 살리 떠나다가 출산이 임박하자 남편만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자현장자의 집에 의탁하여 온갖 시련을 견뎌내는 ‘원강암이’(이공)는 주체적인 여성영웅이기보다는 남성신에 부속된 인물이다. 이처럼 여성영웅시대가 남성영웅시대로 이행해 간다.

여성 문화영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초공본풀이>를 보자. 아기씨가 집에서 쫓겨나 방랑하다가 자기를 임신시킨 주자 선생을 만나게 되는 대목에서 우리는 즐거운 해후를 기대했다. 그러나 주자 선생은 아기씨에게 두 동이의 엄청난 벼를 손톱으로 까라는 시련을 준다. 아기씨가 손톱으로 껍질을 까다가 힘이 들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참새들이 날아와 모든 벼의 껍질을 까주고 간다. 이 모습을 본 주자선생이 아기씨를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이야기를 만난다. 의붓어미는 콩쥐가 왕실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벼의 껍질을 까는 일을 부과하였는데, 참새들이 날아와 모두 해결해주었다는 이야기다. 서양에서는 요정의 도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녀의 도움이 있다. 하늘의 은혜를 입는 주인공은 왕비가 되거나 신격이 된다. 하늘의 권능과 여주인공의 능력이 닮아 있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곡모신의 모습이 아닐까. 앞에서 살핀 주몽의 어머니 유희는 아들에게 오곡의 종자를 보내는 곡모로서의 능력을 갖는데, 삼형제의 어머니인 아기씨는 유희의 권능과 대비된다. <제석본풀이>에서 당금애기는

아이의 탄생을 주재하는 삼신이 되었듯이, <초공본풀이>의 아기씨는 곡식과 연관되는 생산신의 모습을 애초에 지녔는데, 후에 어머니의 역할은 축소되고 삼형제 무조신의 능력만이 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할망본풀이>도 여성영웅서사시의 반열에서 논할 수 있다. 명진국 따님애기와 동해용왕 따님애기의 투쟁은 여성영웅의 대결인데,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명진국 따님애기가 승리하여 삼승할망이 된다. 그러나 이 <할망본풀이>도 불교적·도교적 윤색이 많아 고대와 중세의 성격을 겸비한다. 이승과 저승, 선과 악의 관념도 개입된다.

제주는 중세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아 고대국가로만 머물다가 백제에 이어 신라에 복속되었다. 무속은 불교·유교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후 조금씩 중세이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신화 본풀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교가 먼저 무속과 서서히 습합되고, 유교는 18세기 이형상 목사의 탄압 이후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조상신 숭배 관념이나 유교의 좌도로 일궈어지는 풍수사상의 수용은 일찍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세이념의 접촉과 더불어 신화에 보다 내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부여되었다. 윤리적인 가르침은 신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도 했다. 본풀이 속에서 악인은 반드시 징치되는 법칙을 준수한다. 일반신 본풀이의 서두를 장식하는 <천지왕본풀이>에서의 수명장자, <이공본풀이>에서의 자현장자는 악인의 전형이고 그래서 그 가족까지 철저히 응징된다.

중세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원죄의 신화도 재창조된다. 신화를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여 수용하고 변용하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이승차

23)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탐라문화연구소, 2009, ‘개요’ 참조.

지 경쟁을 한다. 소별왕이 꽃피우기 경쟁에서 질 것을 알고 잠자기 내기를 청하고는 꽃을 바꿔치기한다. 위계로 내기에서 이긴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형인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세계에는 살인, 역적, 간음, 도적이 들끓는 부정한 세상이 되었고 저승세계의 법은 맑고 공정하다고 한다.²⁴⁾ 신이 저지른 원죄 때문에 인간세계가 부정한 세상이 되었고, 이 세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보는 사고가 생겼고, 우리들 현실적 인간을 부정한 존재, 부도덕한 존재로 보는 사고와 직결된다.²⁵⁾

그러나 무속은 중세이념과 불화를 거듭했고, 불교와 유교의 불화의 흔적도 본풀이 속에 수차례 드러난다. 우선 <초공본풀이>를 보자. 삼형제가 장원급제를 하자 삼천 선비는 배가 아파 상시관에게 탄원하게 된다. 중의 아들들 급제시키고 양반의 자식은 낙방시킨다고 진정하자, 중의 자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음식상에 고기를 올리니 삼형제가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낙방시키게 된다. 유교 양반에 의해 중의 자식이 폄박받는 대목이다. 서두에 “주자선생이 중의 복장을 하고 주년국 땅으로 내려왔다”²⁶⁾는 대목을 보면 왜 중의 이름이 ‘주자’인지, 거기에 선생이란 호칭까지 덧붙였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유불 동거의 시대도 있었던 것 같다. 아마 고려시대의 지배이념인 불교와 통치이념인 유교가 공존하던 시절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중의 자식들이 과거를 보는 대목도 흥미롭다. 당시 과거제도는 유교의 인재등용법으로 유용한 제도였다. “과거는 천인이 아닌 양인이라면 한

24)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허남준, 『제주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호, 2008, 106-107쪽 참조.

25) 이수자, 『제주도 창세신화를 통해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비교민속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7, 251-252쪽.

26) 현용준, 『제주도신화』, 41쪽.

문능력시험을 거쳐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졌다. ……기회균등의 명분을 그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어도, 신분의 고착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²⁷⁾ 즉 신분에 따라 관직을 담당하던 기존의 관습을 파탈시켰고, 인문학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중이 비하되고 불교가 탄압 받는 장면은 조선조 억불정책 하의 시대상이 느껴진다.

<차사본풀이>에서 아들 셋의 명을 잇기 위해 중이 되어야 한다는 점괘가 나오자, “양반집에 사당 공사가 나는구나.”라고 탄식하는 장면과, 세 아들이 절에서 나와 과양생이 집을 방문하자 처가 나오면서 대뜸 “수별감아, 수머슴아, 어서 나와 이 중 귀 잡고 옆질러서 마당에 놓아 멍석 걸이 하여라.”²⁸⁾라는 장면이 나온다. 중이 되는 것은 양반집의 수치라고 여기는 관념에 덧붙여, 중이라면 볼 것 없이 멍석말이를 할 수 있던 승려 비하의 인식이 유교와 불교의 불화를 증명해 준다.

이에 대한 불교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물론 민초들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보복이다. <초공본풀이>에서 중의 세 자식은 일흔 다섯 자 되는 칼을 만들어 이 칼을 한 번 휘두르면 하루 천 명씩 양반의 모가지가 떨어지게 된다. 자신들의 장원급제를 방해한 양반 출신 삼천 선비에 대한 정치 치고는 너무 잔인하다. <삼공본풀이>에서 나쁜 사록을 “지위 높고 자리 높은 박종실 집으로 쫓아버리자”라고 하면서 양반 권세가에 대한 증오도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밥을 빌려 가지만 부잣집에서는 인색할 따름이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허기를 채운다. 그때 세경신은 ‘큰 농사는 망하게, 작은 농사는 흥하게’하는 조치를 취한다. 무속의 세계에서 바라본 지배계층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27) 조동일, 『동아시아 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73쪽.

28) 현용준, 『제주도신화』, 90-92쪽.

정서가 잘 드러나는 현장성을 접하면서, 그것이 지배계층의 이념인 유교에 대한 태도에 다른 아님을 느끼게 된다.

고대와 중세가 중첩된 현상을 <세경본풀이>를 통해 정리해 본다. 분명 <세경본풀이>에는 고대적 잔재가 도처에서 발견된다.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말죽을 먹일 때, 말총으로 말의 혀를 묶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트릭을 쓰는데, 이는 주몽이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너무도 유사하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부엌이를 화살 한 대로 제압한다. 활쏘기와 말을 다루는 능력에서 여성영웅의 면모를 지녔다. 게세르 신화의 여성영웅 ‘알마 메르겐’을 연상케 한다.²⁹⁾

정수남이의 말 꺾질 벗기는 고기를 먹고 난 뒤의 장난스런 행위로 보아선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예를 보자. 신공왕후의 신라 정벌과 관련된 <古事記>의 기사를 보면, 천황이 죽자 빈소에 유체를 안치하고 폐백을 거두어들인 후, 짐승을 산 채로 벗기는 죄, 관개수로를 매우는 죄, 신성한 제장에 대변을 누는 죄, 부모와 자식 간에 간음한 죄, 말·소·개·닭들과 간음한 죄 등을 열거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정을 없앴다.³⁰⁾

스사노오가 아마테라스 신을 능멸하고 모욕하기 위해 심한 행동을 했는데 위의 부정적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 “밭둑을 무너트리고, 관개용 수로를 막고, 밭에 물을 끌어들이는 나무 통로를 부숴버리고, 씨앗을 뿌린 곳에 다시 또 씨앗을 뿌리고, 남의 밭에 막대기를 꽂아 빼앗고, 말

29) 알마 메르겐은 말타기, 활쏘기 실력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늘신, 지상의 용사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한다. 심지어 게세르를 구출하는 여성영웅이다. 물론 게세르 신화는 중세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고대 유목민족의 신화적 원형이 많이 담겨 있다. 일리아 마디슨, 양민중 역,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서울판사, 2008.

30) 노성환 역, 『고사기』, 예전, 1990, 179쪽.

껍질을 벗기고, 대소변과 같은 오물을 뿌리고 하였다”³¹⁾

이런 행동은 놀부의 악행과 비슷하다. 이를 두고 최진원 선생님은 “우물 밑에 똥 누기, 오려 눈에 물 터놓기, 패는 곡식 짝 자르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는 지연(地緣, 生成力, 농경)의 방해이고, “초상난 데 춤추기, 해산한 데 개 잡기, 과객 내쫓기, 아이 뺨 계집 배차기”는 영연(靈緣, 生生力, 금기)의 모독이라고 했다.³²⁾ 일본신화의 부정을 불식하는 행위도 농경을 방해하고 금기를 모독하는 두 가지 행위에 대한 주술적 정화의의식이었다. 결국 정수남의 ‘말 껍질 벗기기’는 금기 모독을 들추어내어 정화시키는 의식이 원천에 흐르고 있다. 정수남을 칭찬하는 자청비는 여성영웅적 존재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청비의 행위는 지극히 경쾌하게 흐르고, 이야기의 진술방식이 로망·로맨스에 가깝게 변했다. 우선 자청비의 탄생담을 보면 원불수륙제의 기자 소원이 정성 부족으로(늘 하나가 부족) 여자로 태어나는 유형적 이야기다. <초공본> <칠성본> 등 많은 이야기기 이런 유형에 속한다. 원불수륙제는 불교의 전형적 제의이고 조선 중엽까지 왕실에서 거행된 바 있다.³³⁾ 물론 불교적 흔적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정성 하나가 부족하여 딸로 태어나고 혼사장애를 거쳐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고전소설의 ‘혼사장애’ 모티프를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니 중세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서사시

31) 『古語拾遺』, 현대사조사, 1976, 193쪽.

32) 이 부분은 최진원 선생의 미출간 원고의 일부에서 영감을 떠올렸다. 선생께서는 놀부의 심술을 언급하면서 “罪·惡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없다. 놀부는 속죄양 - 이 세상의 모든 사(邪)를 혼자 짊어지고 먼 곳으로 추방당하는 재웅(芻靈) - 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놀부의 심술을 ‘불(祓)’의 차원에서 본 바 있다.

33) 허남춘, 『음사로 정의된 기층신앙의 실태 연구』, 『인문과학』 31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498쪽.

라고 할 수 있겠다.

조동일 교수는 신이고 영웅이고 범인(凡人)이기도 한 성격을 지니되 범인의 속성이 짙게 나타나면 ‘범인서사시’로 보아야 한다며, “제주도의 당본풀이와 다른 일반신본풀이는 중세에 들어와서 다시 만든 범인서사시라 할 수 있다. 다른 어디서나 범인서사시의 가장 긴요한 주제로 삼은 애정갈등을 다른 솜씨가 탁월하다”³⁴⁾고 하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경본풀이>를 들고 있다.

일반신본풀이에 흥미 위주의 개작과 변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육지에서 건너온 것이 많고 시대적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한 구비서사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일반신본풀이는 농신(農神), 문신(門神), 산육신(產育神), 무조신(巫祖神) 등의 신격이 주인공인 원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필 필요도 있다. 그만큼 신이고 영웅이고 범인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자칭비는 세 번 옷을 벗는다. 첫째 서당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직전 자신이 여성임을 알리기 위해 문도령과 목욕을 제안하고 옷을 벗는다. 둘째, 정수남의 꼬임에 문도령을 만나러 나섰다가 짠 범벅을 먹고, 정수남에게 속아 옷을 훌쩍 벗고 음부를 드러내고 물을 먹는 장면이다. 셋째, 서천꽃밭에서 정수남의 원혼인 부영이를 잡기 위해 옷을 벗고 눕는다. 이 세 장면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첫째는 세속적이고 낭만적이며, 둘째는 트릭과 위계에 의한 고난이며, 셋째는 원초적 생생력(生生力) 상징이다. <세경본풀이>가 변모를 거듭하며 흘러온 과정이 세 번의 옷 벗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본풀이 속에 세 번째와 같은 원초적인 요소가 남아 있지만, 이 본풀이는 서서히 두 번째의 요소를 담아내다

34)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40쪽.

가 첫 번째와 같은 세속적이고 낭만적인 문맥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IV. 근대와 신화

중세의 역사는 신화적 차원을 수용할 수 있기도 했거니와, 중세의 유교나 불교는 필요에 따라 신화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도덕적·윤리적 가르침을 강화해 나갔다. 신화 속에 선악, 시비, 효열을 강조하는 문맥은 이 시기에 강화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세 질서가 완고하던 시기가 지나면서 윤리적 관념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근대 이행을 맞으면서 근대적 자본주의의 맹아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런 조짐이 신화 속에도 반영된다.

<차사본풀이>는 저승사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인 염왕이 정치의 대상이 되고 저승세계의 질서는 흔들린다. 강림이 저승에 가서 염왕을 공격하자 호위군사는 도망하고 염왕은 강림 앞에서 벌벌 떤다. 결국 수갑을 차고 밧줄에 묶여 호송되는 신세가 된다. 열세에 놓인 인간이 신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기존 질서 전체를 허물지는 못 했다. 강림이는 나중에 염왕 아래에서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니, 왕과 신화의 상하관계를 역전시켜 중세질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전형인 ‘과양생이의 처’를 주목하게 된다. 그녀는 단순한 악인의 모습이기보다는 근대 이행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버무왕의 아들 삼형제가 절에서 머물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과양생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명주 비단을 꺼내 인사치레를 하자, 과양

생이의 처는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탐심을 갖게 되고, 결국 삼형제를 살해하는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삼형제가 죽어 구슬로 화하고 그것을 삼킨 과양생이의 처는 아들 삼형제를 낳게 되고, 그들은 자라 과거를 보게 된다. 아들 삼형제가 과거 급제하여 돌아오는데, 자기 자식인지 모르고 그 경사를 배 아파하면서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아따, 어떤 놈의 집안은 산천이 좋아서 과거를 하고 오는가? 우리 집 아들들은 어디 가서 남의 손등에나 죽었는가. 발등에나 죽었는가. 저기로 과거하고 오는 놈일랑 내 앞에서 모가지가 세 토막에 부러져 뒤어져라.”³⁵⁾ 결국 삼형제는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는다. 말의 주술성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지만, 변화한 당시의 세태가 먼저 읽힌다.

과양생이는 자기 자식들이 죽자 억울하다고 하면서 하루에 세 번, 100일 동안 원님께 소지(所志)를 올리며, “개 같은 원님아”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하소연하니, 원님이 강림이를 저승세계에 보내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100일 정성의 신성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끄찍이 위하지만 남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 하루에 세 번 씩 100일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맹목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이기적인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남을 짓밟더라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우리 시대의 어머니, 하루에 세 번이건 네 번이건 학원에 다녀야 하고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어머니들이 떠올랐다. 아들의 대학 입시와 성공을 위해 절과 교회에서 100일 기도를 마다 않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떠올랐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과 강남 진입을 위한 투기는 죄가 아니

35) 현용준, 『제주도신화』, 97쪽.

라는 지배계층의 비양심이 겹쳐진다.

그렇게 극성을 부려 과양생이의 처는 성공했는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의 욕망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과양생이의 처를 보면서, 극성스런 강남(江南) 아줌마의 패망 스토리를 떠올리게 된다.

근대 상품화폐 경제에 따른 물화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판소리, 그 중에서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홍보가>의 놀부를 함께 떠올리게 된다. 금전만능의 풍토에 젖어 있던 놀부의 패배는 반윤리적인 이윤 추구, 탐욕스런 이기주의의 패배다. 자본의 성장과정에 따르는 윤리의식의 문제가 놀부를 통해 제기된 셈³⁶⁾인데, 과양생이의 처는 놀부의 ‘반윤리와 이기주의’를 빼닮았다. 그래서 <차사본풀이>에서는 고대의 신앙이 부정되고, 중세적 윤리도 부정되는 근대 이행기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근대를 맞으면서 중세적인 모든 것이 청산되고, 그것들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통칭되면서 물가치의 대상처럼 여긴다. 신화와 종교가 함께 미신과 비논리로 처단 당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들의 근대는 어떤가. 세상을 너무 현실주의의 테두리에 가두고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신화가 감당했던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의 무의식은 미쳐 날뛰게 되었고, 정신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많아졌다. 초월적인 가치를 잃고 인간은 투명한 벽에 둘러싸여 초라해졌고, 신성(神聖)을 잃고 자꾸 거친 인간이 되어가다가 급기야 동물적 본능에 휩싸이게 되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세계는 물질적인 것이 위주가 되면서 정신적인 가치는 거세되었고, 이기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제 근대의 파탄을 추스를 때가 되었다. 근대의 가치 중 ‘평등’과 ‘자

36) 권순궁, 『민중의식의 성장과 판소리 문학』, 『민족문학사강좌』 상, 창작과비평사, 1995, 315쪽.

유' 같은 것은 살리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속의 가치를 옮겨 와야 한다. 근대 이전의 것을 후진의 야만, 논리 이전, 구비, 주술이라고 버린 채 선진의 문명, 논리, 기록, 과학을 발전의 동력인 것처럼 여기던 그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야만, 논리 이전, 구비, 주술이라고 폄하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통을 살려 문명, 논리, 기록, 과학을 스스로 이룩하려고 분투”³⁷⁾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근대에서 주목할 것은 당연히 신화와 종교다. 특히 신화 속에 녹아 있는 야생의 철학, 야생의 과학을 찾아내 밝히면서 그것을 근대 과학·철학과 함께 조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신화는 분명 우리가 잃었던 것, 혹은 우리가 잊었던 진리를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뜻 생명의 공존의 가치를 신화로부터 얻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서로가 경쟁하되 서로를 부축이고 돕는 관계, 베풀고 보답하는 관계를 찾아 발현시켜야 한다. 그래서 과탄에 이른 지구를 구하고 인류의 위기를 구하고 모든 생명의 공존을 얻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이, 민족과 민족이 공존하는 질서를 발견해야 한다.

잔인하다고 여긴 원시적 의식의 일단에 대해서는 배격하였지만, 전통 신화에 관대했던 불교와 도교의 역할도 재론해야 한다. 관념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신화를 이용했던 일연의 <삼국유사>는 신화를 온전히 보존하는 디딤돌 역할을 넘어, 민족의 역사와 자존을 가능하게 했다. 신화에서 피어나는 신성의 의미를 잘 간직한 중세 보편 종교의 품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땅과 모성의 자애로움을 하나로 보며 여성성의 원리로 도로 체현시킨 도교의 노력도 신화와 맥이 닿아 있다. 극단

37)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5, 계명대출판부, 2007, 227-228쪽.

주의와 원리주의로 흐른 조선의 유교와는 달리 고려 유교는 불교와 동행하면서 앞 시대의 신화에 대해 그다지 엄하게 굴지 않았다. 이규보의 신유학적 면모와 <동명왕편>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동양의 중세 보편종교 역시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일원론적 사유를 지속시키고 있었고, 인간과 자연세계 만물과의 공존과 평화를 추구했던 점을 다시 새로운 문명론에 덧붙여야 옳다.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지구의 모든 것을 이용할 자원으로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신화 속의 인간들처럼 ‘대지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대지에 깃들여 사는 모든 생명과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20세기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신화를 버리고, 대량살육·집단 학살의 신화를 버리고, 적정한 생산과 소비, 생명 존중과 치유의 신화를 되살려야 한다.

참고문헌

- 권순궁, 「민중의식의 성장과 판소리 문학」, 『민족문학사강좌』 상, 창작과비평사, 1995.
- 김용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0.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김현선,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 『탐라문화연구』 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最古)의 철학』, 동아시아, 2003.
- 노성환 역, 『고사기』, 예전, 1990.
- 大林太郎, 권태효 외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6.
- 레비 스트로스, 임봉길 역, 『신화학』 1-날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5.
- 윤순희,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수자, 「제주도 창세신화를 통해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비교민속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7.
- 일리아 마다손, 양민종 역,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솔출판사, 2008.
- 전경수, 「사멸위기의 문화유산과 토속의 재발견」,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민속원, 2009.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조동일, 『동아시아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9.
-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5, 계명대출판부, 2007.
-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6, 계명대출판부, 2007.
- 조동일, 『세계서사시의 중세화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 조동일, 『동아시아 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 허남춘, 「음사로 정의된 기층신앙의 실태 연구」, 『인문과학』 31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허남춘, 「제주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호,

2008.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현용준, 『제주도신화』, 서문당, 1996.

Abstract

The characteristic and transformation of Jeju Myth in primitive and ancient and the middle Age

Heo, Nam-Choon*

There are many accounts of human lives and natural phenomena and the great universe in myth. Myth was made from the paleolithic age, and vigorously made in ancient age. They variously transformed in the middle age because of the Buddhism and Confucian. There are abundant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about myth in modern time. It is my goal to find the each historical thought in myth going through long time.

It was reflected on the myth that men thought sacredly hunting and war and sex in primitive age. And they were afraid of natural phenomena for example the thunder and a windstorm and a solar eclipse. The nature(stone, tree, moon etc) and natural phenomena were thought to sacred as time pass. There was important meaning on the God of wind in Jeju. Men communed with nature, and it was reflect in myth. They related on equal terms men and animals. They believed that animals were superior to men under any circumstances. Animals became an object of hunting, but sometime an object of worship.

There was the revolution of agriculture in the neolithic age. Men certified sacred to the earth and plant, and they believed the communion in men with nature. Myth emphasizing life force of flower

* Chief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stood out in Jeju. There were abundant myth spring out from earth modeled after figure of spring plant. Three heros in the birth myth of a nation(Tamla) gushed out from earth.

The ancient age is a period of hero. At first heroin appeared, next hero appeared. There remained the myth of heroin in Jeju, because that was not oppressed from ideology of the middle Age. But influence of ideology in the middle Age was not able to avoid. So folk beliefs changed to Maitreya after accepting the Buddhism. Myth exposed the value of ethics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

Hero of ethics got changed to hero of romance in the age of transition to modern. It was quiet similar to hero of the classical novel. Myth keep the structure of tail, but changed a view of the world like this.

Key Words

ancient Myth, the middle Age Myth, heroin, hero, god of hunting, god of grain, nature worship, Buddhism, Confucian, variation, ideological conflicts

교신 : 허남춘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hnc423@jejunu.ac.kr 전화 : 064-754-2718)

논문투고일 2011. 01. 11.

심사완료일 2011. 02. 09.

계재확정일 2011. 02. 16.